

366장 -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338장 -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소원은 늘 찬송 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 (2) 내 고생 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 (4)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6월 18일(월) 기도 담당 : 길강현 집사

2018년 6월 16일(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66장	다같이
기도	김현웅 집사
성경봉독 요기 20장 1~8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왜나입니까?』	박세훈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338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요기 20:1~8 >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5)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6)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달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 자기의 통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 그는 꿈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6월 16일(토)

온 땅의 주인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사랑 안에서 창조하시며, 오늘도 그 생명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획 가운데 우리 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은 짐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내라고 몰아가며 이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안식하지 못하고 곤고한 삶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까닭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 안에서 도리어 세상을 향해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세상 속에 또 다른 건물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절망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는 새문안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한 건의 사고없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 중에 건축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문안교회의 영적 리더인 이상학 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됨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주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깊은 친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 땅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분단국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주님 뜻 안에서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날을 허락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된 통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하는 한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